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1일(수) 총 10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 담당관실	담 당 자	• 중국정책팀장 김혜영 ☎440-3231 • 담당자 김담희 ☎440-323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은?

- 8일, 제5회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
- 한중수교 30년 성과 점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역할 모색 -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인천시와 중국대사관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제5회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8일 인천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창립했다.

매년 포럼 사업을 집성하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1년 제5회를 맞는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는 ‘30년을 넘어 미래를 잇는 상생·혁신·공감의 한중관계와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과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인천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5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나기운 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올해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인차이나포럼이 30년을 넘어 미래를 향한 한중 교류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차이나포럼 2021 국제컨퍼런스는 당일 생중계되는 유튜브 채널(INCHINA FORUM)을 통해 사전 신청 없이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하다.

<별첨> 포스터